KAZA Newsletter

2020 Aug.
Vol.4



Winner, Heart and Minds category: Thao whipping frogs,
by Eleanor Stobbart at Paignton Zoo, Wild Planet Trust.
Species: Thao whipping frog
Photograph: Eleanor Stobbart/BIAZA 2020 Photography Competition



전주동물원에 천연기념물 보존관 만든다...소쩍새 등 50여종 보호

전북 전주동물원에 천연기념물 보존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는 전주동물원 부지 4천㎡에 전시장과 적응 훈련장, 검역에 대비한 격리장 등 기능을 갖춘 보존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천연기념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보존관이 들어서면 독수리와 소쩍새, 올빼미, 참매, 칡부엉이 등 50여마리의 천연기념물의 전문적 치료와 보호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문화재청과 국회 등에 보존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동물 전시장' 수준이던 동물원을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교감 가능한 치유의 공간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동물마다 다른 야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바닥에서 살아가야 하는 습성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흙과 나무를 최대한 이용, 동물들이 야생성을 되찾고 원래 습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우선, 캐나다기러기 등 11종 41마리가 사는 물새장에 조류별 개체에 맞는 나무 등을 심어 보금자리를 자연 서식지와 유사하게 조성, 활발한 번식 활동을 유도했다. 또 좁은 공간에 갇혀 생활할 경우 스트레스로 행동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맹수의 특성을 고려해 사자·호랑이사의 공간을 2배로 늘렸다.

늑대사 역시 야생의 자연 서식지와 유사하면서 생태적인 새로운 보금자리로 탄생했다. 새로운 늑대사는 자연형으로 방사장 지붕을 없애고 커다란 고목 아래에 바위와 작은 나무, 잔디 등의 자연소재를 활용했으며 방사장 면적도 기존보다 50배 정도 넓게 확장해 늑대 4마리가 생활하도록 했다.

기존 261㎡였던 곰사도 9배 넓어진 2천326㎡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국내 동물원으로는 드물게 총 11개의 방으로 구성된 내실과 3개의 방사장에 동물을 교차 방사할 수 있는 순환 방사 시스템이 구축됐다.



표범, 스라소니, 재규어가 생활하던 기존 실내 방사장도 허물고 기존보다 7배 확장된 외부 방사장 형태의 '맹수의 숲'을 조성하기도 했다.

출처: 연합뉴스 사진:새전북신문

Kor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KAZA)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 저어새 야생으로 돌려보낸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오는 30일 오후 12시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저어새 5마리를 야생으로 방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어새는 전세계에 48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전세계 번식 개체의 약 90%인 1400쌍이 있다.

이번에 방사하는 저어새 5마리는 지난해 5월 인천 강화도 각시암과 같은해 8월 인천 송도 갯벌에서 구조됐다.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저어새를 방사한다고 전했다.

출처: 뉴스1 사진: 국립생태원



에버랜드 '판다' 자연 번식 성공 국내 첫 출산



국내에서 세계적 희귀 동물인 자이언트 판다(이하 판다)가 자연 번식에 처음으로 성공해 암컷 1마리가 태어났다.

에버랜드는 22일 "지난 20일 밤 국내 유일의 판다 한 쌍인 암컷 아이바오(만 7세)와 수컷 러바오(만 8세) 사이에서 아기 판다 1마리가 태어났다"며 "국내에서 태어난 최초의 자이언트 판다로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산모와 아기 판다 모두 건강하다"며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에버랜드에서 생활한 지 1천601일 만"이라고 소개했다.

에버랜드는 현재 197g인 아기 판다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판다월드 내부에 특별 거처를 마련했고 당분간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 대신 일반 공개 전까지는 에버랜드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기 판다의 성장 과정과 근황을 지속해서 공개할 계획이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2016년 3월 중국 쓰촨성 판다기지에서 약 2천400km를 날아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해 왔다. 당시 만 3세와 만 4세로 어린 상태였지만 판다월드에서 성체로 자라며 지난해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판다는 평균 수명이 20~25년 정도이며 야생에 1천800여 마리만 남았을 것으로 추정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취약종으로 지정한 동물이다.

출처:엽합뉴스 사진: 에버랜드

Kor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KAZA)

환경부 “동물원 허가제 추진하겠다”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카페와 육견 농장 등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한 인간-동물 접촉 공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동물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9일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그리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에 나선 이항 서울대 교수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야생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세계적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곰팡이질병이 많고, 사람이 원인인 두 가지 특성이 있다며, 일례로 항아리곰팡이병은 개구리의 국제적 거래로 퍼졌다고 설명했다.

이항 교수는 야생동물과 가축, 인간의 접촉점을 통해 병원체가 확산한다며, 기존의 동물원, 축산농장 등 전통적인 시설말고도 야생동물 카페, 육견(개) 농장, 야생동물 구조 현장 등을 지적했다.
출처:한겨레

동물은 코로나19 검사 어떻게 받을까?... 고릴라 검사 장면 공개

미국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현지의 한 동물원에 사는 고릴라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CBS 마이애미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마이애미동물원에 서식하는 고릴라 ‘샨고’는 올해 생후 31년의 수컷으로,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형제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지 수의사들은 이 고릴라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미열과 폐 이상 증상 등을 발견했고,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검사를 진행했다. 또 결핵 검사 기관지경술 등을 통한 폐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

수의사들은 형제와의 싸움에서 생긴 깊은 상처를 치료해야 하는데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긴 면봉을 코에 넣어야 하는 예민한 과정을 고려해 고릴라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잠들게 해야 했다.

또 검사 도중 거대한 고릴라가 깨어나 의료진을 위협할 경우를 대비해 침대에 단단히 묶은 뒤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릴라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코와 입에 긴 면봉을 넣고 체액 성분을 채취해 검사를 받았다.

출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Kor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KAZA)